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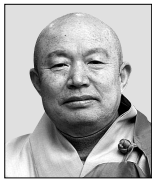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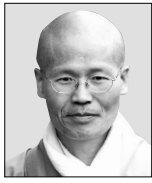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경료잔치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5월 13일 서대문구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국악 공연을 겸한 경료잔치를 개최했다.



네팔 돕기 성금 3만불 기탁
한국불교대교종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은 5월 10일 네팔 돕기 성금 3만불을 불교TV 부산지사에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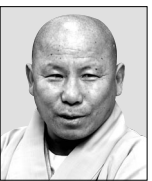


송광사 템플스테이 개최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5월 29일~31일 오후 4시 산사체험관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템플스테이-스님, 계십니다'를 진행한다.



제16회 세월호 치유 길상음악회
서울 길상사 주지 덕은 스님은 5월 25일 저녁 7시 길상사 극락전 앞에서 '제16회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길상음악회'를 진행한다.

정광학원 이사장에 원일 스님



불교 종합학교인 정광학원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에 원일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지난 5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이사장에 원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운문사 승가대학장 흥륜 스님 입적

흥륜 정도 운문사승가대학장 스님이 5월8일 오전 11시 27분 운문사 삼장원에서 입적했다. 영결식은 5월 10일 운문사에서 봉행됐다.

“우리도 세계인 도움으로 희망 가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네팔 돕기 성금 기탁 ‘훈훈’

“우리도 피해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전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가졌습니다. 작은 정성이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군자, 이옥선 할머니 등 8명 500만원 지구촌 공생회에 전달

나눔의 집 할머니 10명 십시일반 모아

지원 및 피해지역 복구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성금 전달식에서 할머니들은 그동안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위안부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데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다.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통해)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할머니들도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네팔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작은 정성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카트만두 보우더 지역에 총 24,000L의 긴급 식수를 지원했으며, 이번 지진의 최대피해지역인 신두팔족 지역에 식량을 포함한 구호물품(13,000kg)을 우선 지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카트만두, 다름, 신두팔족 지역으로 확대하여 2차 구호활동을 벌인다.

제주 지역 포교 활성화 ‘청신호’

지원 스님, 포교사단 제주단장 오태숙 포교사 임명

지난 4월 2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은 포교사단 제주지역단의 단장이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 준비를 마쳤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5월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오태숙 포교사단 제주지역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리에서 지원 스님은 “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며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배려해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야 한다. 제주지역단도 이

를 염두하고 포교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태숙 제주지역단장은 “제주는 불자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해방 이후 이웃종교가 유입되면서 교세가 줄었다”면서 “제주지역단이 출범한 만큼 제주불교 활성화에 책임을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단은 2011년 1월 서울경기지역단에서 분리된 제주지할림을 기반으로 창단했다. 지난해 3월 제주지할림 분야별연수에서 제주지역단 출범 필요성이 제기돼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관리방안이 논의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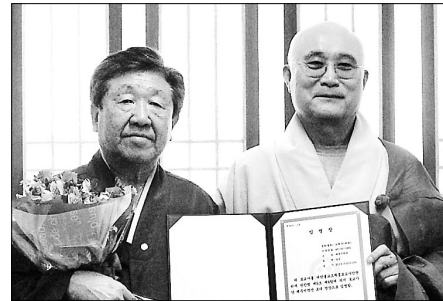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오태숙 포교사, 지원 스님

으며 올 3월 포교사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창단이 결의됐다. 포교원은 4월2일 포교원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단 창단을 승인했다.

한편, 포교사단 제주지역단은 6월14일 오후 2시 관음사에서 출범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스스로 이미 부처라는 자각 갖고 실천 하길”

KBS 등 언론인불자회, 여의도서 봉축탑 점등식

KBS 불자회와 언론인 불자연합회는 5월 11일 여의도 잠사회관 앞 의사당대로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여의도포교원 현진 지도법사 스님, 금동수 KBS 부사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열었다.

삼귀의례와 반양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한국불교차인중앙회 회원들의 헌다 공양, 여의도 포교원 합창단의 축가 공양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스스로가 이미 부처라는 자각을 갖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번에 세워진 봉축탑은 8미터 높이로, 불국사 석가탑을 모양과 크기에서 실물 상태로 본뜬 것이다. 봉축탑은 5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세민 스님,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한서대는 5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인 세민스님(사진)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세민 스님은 1981년 일본 경도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2010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세민대중사는 불교발전을 위한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 1993년 총4권의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를 발간했으며, 또 동관 필만대장경 간행을 추진해 우리 불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 했다.

김주일 기자

‘나누우리’ 네팔에 2만 달러 전달



국제구호단체인 태고종(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스님)는 BTN불교TV(대표이사 구분일)에 네팔 지진피해 돕기 성금 2만 달러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개교 109주년’ 수계 법회



5월 12일 동국대(총장 보광)는 서울캠퍼스 본관 강강당에서 개교 109주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열었다.

이전계사로 나선 이날 행사는 재학생 및 교직원 6백여 명이 참석해 약 190명이 계를 받았다.

박익름 기자

Advertisement for WBOA (World Buddhist Organization Association) featuring the text '우리불교 曹溪宗' and '종정 흥산 현불'.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 list of services (입종 구비서류, 입종 후 발급 증명서), and a closing statement: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